

北, 지난해 고위급 해외파견 '최다'

美 방송, 北 해외방문 분석 보도 20년간 368개 파견 작년 35개 중국·러시아 순 방문 횟수 많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분위기 속에 지난해 동안 35개 고위급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해 199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하와이대 산하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세

계 속 북한'(North Korea in the World)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해외 방문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998년 이후 70개 이상의 나라에 368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집계했다. 중국이 51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1회, 이어 쿠바와 라오스, 베트남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해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던 지난해로, 총 35개 대표단을 해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를 방문한 북한 고위 관리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14회에 걸쳐 11개 나라를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3번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판문점 남북 지역에서 열린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161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평양에 24개 외국 대사관, 함경북도 청진에 러시아와 중국 영사관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54개 나라에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교국 190개 나라 가운데 대사관 115곳과 영사관 46곳 등 166개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



12일 홍콩 국제공항의 체크인 카운터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앉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중앙 터미널로 몰려들자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 **뉴스**

시위대 속속 재집결... '항공대란' 재발 우려

운항 재개 불구 모든 항공편 취소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13일 공항에 속속 재집결하면서 '항공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홍콩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시위대가 공항 제1터미널 출구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공항 측은 자율 보안 검색 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입구를 폐쇄한 대신 공항 직원들이 출국하는 승객들의 신분증과 티켓을 확인하고 있다. 공항 내 일부 가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제2터미널에서는 일부 시

위대가 에스컬레이터를 막아 승객들의 출국을 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콩 국제공항은 이날 오전 운행을 재개했지만 오후 6시 기준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다. 아울러 전날 탑승하지 못한 승객과 당일 탑승하는 승객이 뒤섞여 탑승 절차가 평소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항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공항은 "우리는 정부의 합법적인 시정을 지지하고 경찰이 폭력 사태를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아울러 항공 안전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미국·캐나다 '홍콩시위' 中에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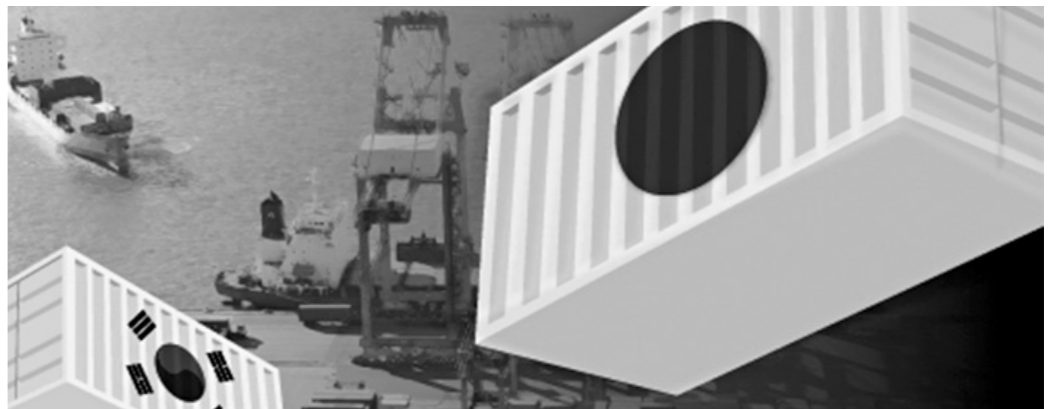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함에 따라 중국 당국의 개입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도 중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주 A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어떠한 폭력적인 탄압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에 경고했다. 매키널 대표는 트위터에 "어떤 폭력적인 탄압도 완전히 용납될 수 없을 것"고 적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홍콩 시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시위를 신중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뉴스**

美 '제로금리' 시대 돌아오나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예상

무역전쟁이 커지고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CNBC는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시장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포인트 낮췄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fAML)는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BofAML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3분의 1 수준이다. UBS의 이코노미스트 세스 카펜터는 "성장 둔화와 위험 요인의 증가는 연준이 더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고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는 연준이 12월 금리를 내리고 2020년 3월 마지막으로 인하해 총 100bp (1bp=0.01%) 인하 사이클이 완

성되리라고 예상했다. 그의 전망대로라면 금리가 1.00~1.25% 수준이 된다. 모건스탠리는 한발 더 나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월, 10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고 2020년에 4번 더 인하하면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BofAML의 전략가 마크 카바나도 CNBC에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제로금리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기관 팩트셋에 따르면 기업 관계자의 28%가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관세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했다. 7월 연준은 금리를 통상 인하폭인 0.25% 포인트 내려 2.00~2.25%로 만들었다. 당시 연준은 장기적인 금리 인하기로의 진입이 아니라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달러-위안 환율이 심리적으로 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서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뉴스**



"아베 정부, 한국에 강경자세 유지"

日 언론, 백색국가 제외 관련 보도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 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유와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NHK가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경산성은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는 한편 강경 자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한국의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의 영향

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강해,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5번째 큰 수출국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으로부터 수입 총액은 약 3조 4천800억엔(약 40조 3천490억 원)이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서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뉴스**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쿨러만 가도 삽니다"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최고가 매입
당일이전/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구입 가능
할부상당 전액 할부 가능

차량구입 + 이전비 + 보험료 + 여운돈

(주)영서모터스
문민식 대표

H. 010-4609-8976

타이티안 유기농 노니주스

신이 주신 선물 내몸을 살리는 '노니'

진한 노니주스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노니주스

USDA ORGANIC

무항부제, 유색소, 유당료

미국 직수입 100%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1002825호

구입 문의 ☎ 062)375-8494 H. 010-3605-2926

수입원 - 광송무역 / 대리점 모집
info@gstkorea.biz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운반 가능 ☎ 062)522-2424 전남 전 지역 ☎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할서비스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전문의 300대기업 알바 테마채용관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사랑방 JOB